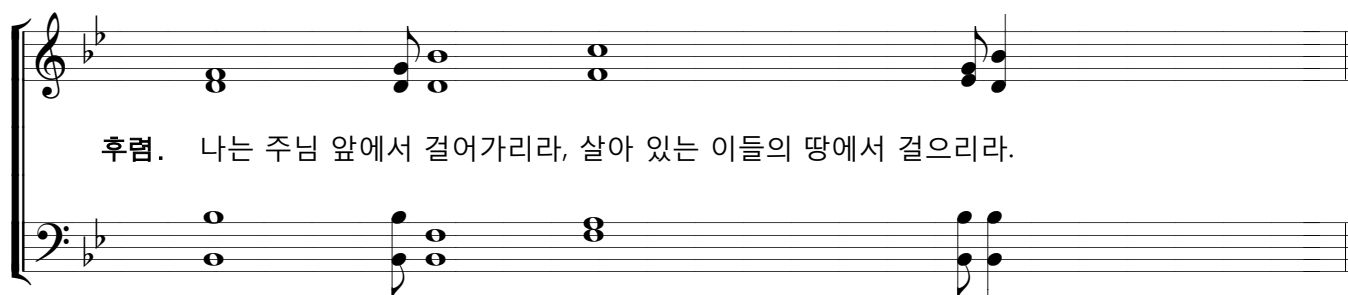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둘째 미사)

2020.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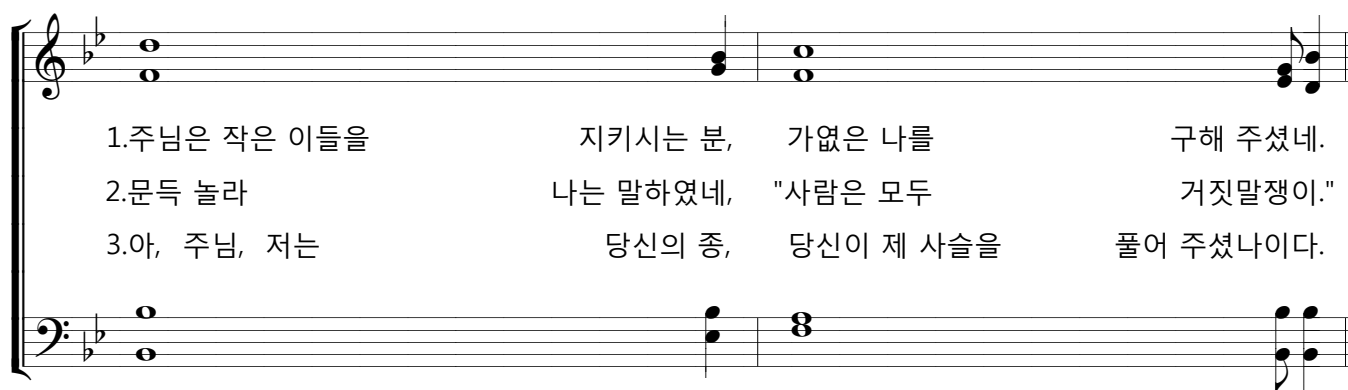
시편 116 (114-115), 5-6. 10-11. 15와 16 그느르 (© 9)



후렴.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1. 주님 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2.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 도, 나는 믿었네.
 3. 주님 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 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1.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없는 나를 구해 주셨네.
 2.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3.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